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Tel : +82-2-880-7241
Fax : +82-2-871-5974
<http://ee.snu.ac.kr>

designed by 학부 08학번 윤성현, 정동주

snu EE LIFE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소식지
2011 하반기

CONTENTS

- 02 - 03 교수 인터뷰
- 04 - 05 대학원 탐방
- 06 - 09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 10 - 11 전기공학부 자체 졸업식
- 12 아마추어 복싱대회 우승
- 13 교환 학생 수기
- 14 - 15 전공도우미
- 16 우수논문상 수상자
- 17 봉사상 수상자
- 18 커버 스토리
- 19 기자단 후기

1965 - 197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학사
1973 - 1974	University of Pittsburgh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1975 - 1977	University of Pittsburgh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1977 - 1981	The Analytic Sciences Corp.(TASC), Technical Staff
1981 - 1982	Charles Stark Draper Lab., Technical Staff
1982 - 1995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1995 - 2011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이장규 교수



“

현재를 최선을 대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지난 것에 집착하여 자신의

발목을 잡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현재를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그것이 가능합니다.

”

Q.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마라토너입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전기공학부의 전신(前身)으로 전기공학부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가 합쳐져 만들어진 학부임.) 교수로 부임하기 직전 보스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여 완주하였습니다. 시간은 3시간 40분이 걸렸지만 완주하기 위해 출전 2년 전부터 뛰기 시작했고 마라톤을 앞두고 4개월 전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습한 기억이 납니다.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매일 뛰는 것이 몸에 배었고, 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도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여생을 사는 동안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또한 운동하면서 얻는 쾌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운동뿐 아니라 책 읽는 습관, 그림을 감상하는 습관 등 좋은 생활 습관은 앞으로 남은 나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생소한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엔지니어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나 자신을 소개합니다. 즉, 나는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던 우리나라가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한 몇몇한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매일 보아야 하는 의사나 정신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매일 다루어야 하는 판·검사 또는 변호사가 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전문인으로서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Q. 교수님께서 전기공학부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부산대학교에 근무하는 C교수입니다. C교수가 학부를 졸업한 후 본교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학부 성적이 신통치 않았습니 다. 내 기억으로는 졸업 성적 평균이 2.7도 채 안 되는 학생이었고, 대학원에 특검이를 하여 입학한 것이지요.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하여 정보도 어둡고 또한 잘못된 정보로 대학 4년 동안 실컷 놀며 지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 입학한 후 학교생활이 확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이 매우 적극적으로 변하였고 무엇이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시작하고 술선해서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 다. 방학이 되면 연구 논문을 준비하여 학술대회에 나가 발표도 하고 외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를 열심히 탐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학위 논문 연구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해외 학술대회

에서 만난 자기 분야 석학에게 연락하여 외국에 나가 박사후과정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성으로 우수한 연구 실적을 쌓게 되었고 부산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지요. 교수로 임용된 후에도 부산 대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교수로 여러 번 선발되어 표창을 받은 C군을 나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군과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GS홈쇼핑에 근무하는 P상무입니다. P상무는 학생 시절 처음 만났을 때 키가 훌쩍 큰 여학생이었는데 몸이 약해 아픈 곳도 많고 공부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의욕 없어 대학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어렵게 석사학위를 마친 후 삼성전자에 입사하였고 그 후 한동안 P양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몇 년 후 나를 찾아온 P양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Bain & Company에 다니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하는 P양은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신세대 젊은이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후배들, 특히 여학생 후배들을 위해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부탁하기 위해 전기공학부 4과 세미나 연사로 초청하였고 그곳에서 소개하는 자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3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때쯤 엔지니어로서 자기의 지평을 좀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떠나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원에 진학했습니 다. 공과대학 전기공학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삼성 전자에서 연구원으로 경력을 쌓고 거기에 MBA 과정을 마쳤더니 어느새 자기가 미국 직업 시장에서 인기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여러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 다. 그 중에서 Bain & Company를 선택하여 높은 연봉을 받으며 Consultant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GS홈쇼핑으로 자리를 옮겨 젊은 나이에 상무이사가 되었고 결혼하여 학부형 노릇을 하며 단란한 가정 생활도 병행하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아보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약해 보이던 학생이 이와 같이 자신감 넘치는 직업인으로 변화된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 교수로서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Q. 인생의 선배로서 전기공학부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억나는 학생을 묘사하면서 강조한 것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신감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Proactivity"입니다.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어렵고 무슨 일이든 내가 주체적으로 앞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C군과 P양이 Proactive Person에 해당됩니다. 여러 분들은 모두 이 사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고 리더의 덕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Proactive Person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를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기공학부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해야 할 전공 공부도 많고 제출해야 할 과제물도 많아 전후좌우를 살피볼 겨를이 없지요.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전후좌우가 꼭 막힌 엔지니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사회와 부단히 영향을 주고 받습니 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사회제도나 요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려면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틈나는 대로 전공이 아닌 분야의 책들을 읽고 또한 전공 외 활동에도 자주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Q.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해오셨고, 이번에 그 교수직에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교수직에 계셨을 때의 느끼신 점과 그 생활을 마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년퇴임을 눈 앞에 두고 생각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후회도 없고요. 후회와 미련이 없기 때문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 다. 이 글이 인쇄되어 여러분이 읽을 때쯤이면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기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며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면 내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것도 일찍부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경험을 좀 더 쌓겠다고 미국 회사에 들어가 연구원 생활을 하다 잠시 귀국하여 은사님들께 인사를 드리려 학교에 들렀습니 다. 그때 제어계측공학과라는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졌으니 귀국하여 후배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고명삼 교수님의 권유로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열пят 인간은 자기 운명을 본인이 계획하고 결정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나, 돌이켜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소한 작은 일들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커다란 일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하는 모양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절대자를 숭배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지금 정년퇴임이 두어 달 남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9월부터 내가 무엇을 하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 가지 않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절대자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했으니깐 그 분이 평생 남은 내 길을 인도할 것이라 믿습니 다.

Control and Dynamic Systems Lab. 제어 및 동역학 연구실

지도교수 서진현, 심형보 교수

연구실 소개 |

제어 및 동역학 연구실은 서진현 교수님과 심형보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제어 이론을 연구합니다. 제어 이론은 매우 오래된 학문 분야로 거의 모든 시스템 관련 공학 분야의 기초 지식 중 하나입니다. 근래에는 공학에서의 관심이 좀 더 응용 기술로 향하고 있지만, 응용 수학과 공학의 연결 고리 사이에 위치한 제어 이론 분야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여러 중요한 공학적 개념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특정 응용 대상을 정하지 않고, 내부 세미나와 외부 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도출된 제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안하고, 그 아이디어를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입증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들자면 비선형 동적 시스템에 대한 상태변수 관측기를 설계하는 이론을 제시하여 국제 학술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고 AIDS 환자의 면역 시스템에 대한 약물 효과를 모델링한 4차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물 스케줄링 기법을 이론적으로 입증한 바 있으며,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외란관측기를 이용한 제어 방법을 우리 연구실만의 이론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형태의 외란관측기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개체 로봇 등의 시스템에 있어서 출력 정보만을 사용한 컨센서스 구현을 연구하고 있으며, 달리는 로봇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속적인 동적 시스템의 제어 문제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학생들은 여러 수학적 이론과 기법을 습득한 후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적인 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수행하며, 논리적 사고와 엄밀성 그리고 창의력을 기르게 됩니다. 특히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점이 저희 연구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교수 인터뷰 | 심형보 교수

Q. 아무래도 학부생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발'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연구실 학생을 선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선호하는 학생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물론 우리의 연구에 동참하여 새롭고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재능에 대한 평가, 관심과 열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간성과 성실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원하죠. 그렇지만 이런 평가가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때 사용하는 잣대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학생이 얼마나 우리 연구실의 연구를 좋아하고 재미있어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절로 열의가 생기고 성실해지며, 시간이 지나면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잘 하게 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학위를 위해서 참으면서 공부하고 억지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언제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선호하는 학생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학부 과정을 겪으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재미있는 과목이나 호기심 가는 주제를 만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더 공부해 보기도 하고, 혼자서 실험을 해보거나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것을 궁금해 하고 재미있어 한다면 말이지요. 이러한 활동 때문에 설사 수업에 몇 번 빠지게 되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은 시험을 망치게 되어 비교적 낮은 학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사소할지 모르지만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뻔뻔한 수업과 실험 일정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면요? 저는 아무리 학점이 좋더라도 이것이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전기공학을 사랑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말이지요, 더구나 전기공학부 학생이라면 학부과정 중에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본인에게는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본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알게 된 진리라든지 뭐 이런 스토리가 한두 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심형보 교수

Q. 진로에 관해 고민이 많은 학부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 같네요. 그래서 답변 대신 그냥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분야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이것은 물론 말로 하기는 참 쉬운데,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과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죠. 또 그것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전망이나 환경의 변화, 주변의 만류 등으로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더구나 하고 싶은 것과 잘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또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마다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만약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평하다' 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 판단하면 결정이 의외로 쉬워지더군요.

대학원생 인터뷰 |

Q.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한성 저는 사실 학부에서 수리과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를 다니며 수학이나 물리 같은 순수과학이 다른 학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궁금했었고, 학부를 졸업하던 학기에 현재 연구실에서 수학 전공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우연히 접하게 되어 저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석사 1년을 보내며 수학, 물리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공학 이론에 대해 흥미가 생겼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에 박사과정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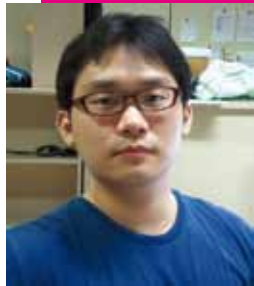
김재용 학부 4학년 때 취업과 진학의 갈림길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맘이 커서 석사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석사에 진학하고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선택들 중에서 가장 힘들 것 같은 선택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중에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산이라는 것을 느끼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같은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에 있습니다.

윤형주 단순히 대답하자면 일단 공학이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격상 제가 하고 싶은 것, 재미있어 하는 것에 몰입하고 또 금방 실증을 내는 경향이 있어서 반복 업무를 하는 의대, 치대, 고시를 통한 행정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보다는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대학원 진학을 위한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한성 제가 수리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학적인 배경지식은 조금 유리했지만 공학적인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선배님들과 동기들을 만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경험에 비추어 자신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면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미리 틈틈이 공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 먼저 가려는 연구실의 분야를 잘 살피고 필요한 선수 과목 등을 미리 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학원 과정 중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지만 선수과목으로 필요한 학부 수업 같은 경우는 과에서 인정해 주는 학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부 때 미리

박사후료생
조한성석사과정 3학기
김재용석사과정 2학기
윤형주

들어놓는다면 대학원에 들어와서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연구실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실의 분위기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형주 본인이 꿈꾸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공과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그에 부합하는 일인지, 또 그러한 선택에 따를 의무와 책임들이 본인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등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여러 일들의 우선순위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Q. 어떤 동기로 제어 및 동역학 연구실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연구실의 장점도 소개해 주세요.

조한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수학전공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교수님과 상담해 본 결과, 제가 배운 수학적인 배경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저의 흥미와도 잘 맞는 연구 분야라고 생각되어 현재의 연구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제어 이론을 연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용 학부 때 제어공학개론을 듣고 처음으로 제어 분야를 접한 뒤에 제어에 대한 이론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우리 연구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실의 장점은 이론적인 분야를 많이 다루고, 주변에 연구에 대해 토론할 많은 연구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구실 특성상 실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원 졸업 후에 박사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을 가더라도 연구하는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형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대학교 2, 3학년 때 즈음에 심형보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공학수학' 강좌를 들으며 '제어'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기에 방향하던 삶에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서진현 교수님께 본격적으로 제어

관련 수업들을 들으면서 이에 흥미가 더해진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 지원하게 된 주된 동기도 우리 연구실이 제어 이론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연구실의 장점이라면 공부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신 점입니다.

Q.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학업과 장래에 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조한성 제가 아직 남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선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자신이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확고한 목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용 대학원에 처음 들어오면 연구실의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처럼 느껴 집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기죽지 말고 꾸준한 자세로 대학원 생활을 한다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생각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선택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선택을 한다면 후회없는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형주 일단 본인에 대해 잘 이해하시기를 권합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와 본인이 처한 환경에 대해 이해한다면 공과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을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도 설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석사과정, 내지는 박사과정 이기에 진학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적절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장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감당하고, 본인이 이끌어 가야 할 '자신'의 삶이니까 말입니다.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동문을 멘토로 모셔 학생들에게 사회 및 직업에 대한 **넓은 시야**와 인생의 **지혜, 여유**를 주는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2011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서 시작된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인생설계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선후배 간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전자, 제어계측과, 전기공학부 졸업 동문 중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멘토로 모셔서 일 년에 2~3번 멘토와 멘티가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 동문 멘토 현황

2011년 3월 현재 42분의 멘토를 모셨습니다.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한 만큼 전기전자 분야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창업)회사, 건설회사, 소프트웨어회사, 외국계 회사, 신문·방송, 변리사, 공기업, 국립 연구소, 의·치대교수, 펀드매니저 등 다양한 직종의 멘토를 초빙하였고, 계속하여 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멘토를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멘토와의 만남

매 학년도 3월 모든 멘토와 멘티가 함께 만나 상견례를 하고 프로그램을 소개받으며, 매칭된 멘토와 멘티는 1년 중 2~3회의 만남의 자리를 갖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자유로운 약속을 통해 '멘토와의 만남' 을 가질 수 있고, 학생센터에서 만남을 중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멘티는 멘토와 상의하여 온라인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멘토와 멘티의 매칭

멘토와 멘티가 각자 자기를 소개하는 프로필을 공개하면 멘티가 모든 멘토들의 프로필을 보고 원하는 멘토와의 매칭을 신청합니다. 그 후 멘토는 자신과의 매칭을 신청한 멘티를 보고 원하는 멘티를 선정하게 됩니다. 매칭이 안 된 멘티에 대해서는 학생센터에서 멘티가 원하는 멘토의 직종이나 연구 분야 등을 고려하여 매칭을 완료합니다.

● 멘티 신청 자격 및 신청

전기공학부에 진입한 전기공학부 소속 학부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매해 초에 전기공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멘티의 의무

멘토와의 만남 후 일시, 장소, 간단한 소감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학생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멘티의 참여 기간은 4개 학기이며 원칙적으로 멘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개 학기 참여 후 변경 가능합니다.

“ 지난 3월 17일에 있었던 ‘2011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에서는 멘토 22명과 멘티 85명, 전기공학부 교수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권 학생센터장의 경과보고, 서울대학교 박명진 부총장의 축사, 위촉장 전달식이 있었고 멘토와 멘티, 전기공학부 교수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학생센터장 김용권 교수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인터뷰 1



임혜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제어계측공학과 82학번

Q. 교수님의 학부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행복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학부시절을 보냈지요. 가장 큰 이유는 저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동아리나 취미 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에 늘 기가 죽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이 적성에 안 맞는 것도 같았고, 남학생들은 쉽게 잘 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쯤 되년부터 잘하는 과목이 생기기 시작했고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학생들에게 2,3학년 때 전자공학이 적성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성에 안 맞기보다는 전자공학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분야이기에 무사히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다른 전공자들이 갖추지 못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지요.

Q.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소개해 주세요.

인터넷 라우터 설계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VLSI설계 관련하여 논문을 썼고, 박사 학위 후 첫 직장이었던 벨랩(Bell Labs)에서는 전공을 살려 통신용 칩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을 시스코(Cisco Systems)로 옮기고 통신망 관련 칩 설계를 하게 되면서부터 통신망 관련 이론이나 기술들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라우터에 들어가는 패킷 전달엔진을 칩으로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통신망 관련 기술에 대하여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나은 구조를 가진 패킷 전달엔진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부임 후부터는 그간 아쉬움을 느껴왔던 패킷 전달엔진 설계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를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Q. 요즘 거의 모든 전공에 걸쳐 자기 전공에 회의를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자공학을 비롯한 공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점에서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자공학을 비롯한 공학이라는 학문에 회의를 느끼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로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수입이나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분야가 어렵다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발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직업을 통하여 추구해야 할 보상이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공학 분야는 전쟁 후 인적 자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를 오늘날과 같은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분야이며, 앞으로도 몇 십년간은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늘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도전의식을 느끼고 있고, 어려운 공학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자공학을 비롯한 공학이라는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큰 보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의 안정성은 공학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몇 직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로서 우리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가 특별히 공학 분야에서 잘못 부각되어 온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전기공학부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교수직을 선망하고 있는데요, 교수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업과 장래희망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교수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도가 높다는 것이 참 좋은 점입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연구 분야를 자유롭게 선별할 수 있어서 좋고,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과 시간이 넉넉히 주어지는 점이 좋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진다'는 것 등이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수직만을 꿈꾸지는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교수직을 꿈으로 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훌륭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분야에 따라, 시대의 유행에 따라, 그리고 또 운에 따라 교수직을 잡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수직을 희망하여 그쪽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연구소에서 혹은 회사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면서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신과 맞는 자리가 생겼을 때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Q.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로서 멘티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 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멘티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커리어패스를 걸어오면서 느꼈던 몇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열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이 하고 싶어서 주말이나 휴일이 싫을 때, 내가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난관을 극복하고 무언가를 이루어 냈을 때 비로소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성실, 혹은 꾸준함입니다. 살아오면서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기가 죽기도 하지만 성실하고 꾸준하게 한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이 길에서는 내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문학, 철학, 사학의 책을 골고루 많이 읽어서 올바른 가치관과 좋은 인성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인터뷰 2



위촉장 전달식



멘티들과의 대화



양희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전기공학부 02학번

Q. 변리사라는 직업과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변리사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여러 종류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합니다. 특허권을 예로 들자면, 기본적으로 특허권을 허여받기까지의 업무(명세서 작성, 거절이유 등에 대한 대응)와 허여된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라이선싱이나 컨설팅 등을 포함하여 여러 지적재산권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Q. 졸업 후 변리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어떤 것이었나요?

(비록 길게는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접하고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은 개인적인 제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전문직'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흔히들 말하는 안정성도 크게 작용했구요. 물론 저도 이 길을 선택할 때까지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내 길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불안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러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Q. 변리사의 장점 및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안정적이다, 여자에게 좋은 직업이다 등 변리사에 대해 널리 알려진 장점들은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변리사라 하더라도 근무하는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업무량이나 안정성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예를 들면 편하면서 안정적인 측면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물론 월급은 좀 적지만) 업무량이 많지 않으면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욕심이 더 있는 사람이라면 힘들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잘 맞는 직장을 선택한다면 변리사라는 직업이 가진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로스쿨 제도나 법률 시장 개방에 따라 특허업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변리사계에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공대 출신들, 또 공대 출신의 변리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변리사라는 직업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Q.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로서 멘티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꿈을 정하셨다면 일단 치밀한 계획을 짜서 자신에게 떳떳할 만큼 필사적인 노력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계획에 따라 찬찬히 노력하면서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니 한 번에 다 이루지 못하였다고, 또는 못할 것 같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Q. 변리사를 꿈꾸는 후배들을 비롯한 전기공학부 후배들에게 학업 및 장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많이 배우고 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주제의 양질의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공 수업은 여러분이 사회에서 '전기공학부'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 다양한 주제의 교양 수업은 세상을 다각도로 보는 눈을 키워 주기 때문에 사회에 나왔을 때 누구나 겪게 되기 마련인 각종 시련, 위기,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훌륭한 교수님, 선배님, 친구들도 학교가 제공하는 좋은 교재입니다. 이분들을 잘 관찰하면 훌륭한 자세, 습관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인터뷰



류장근

학부 06학번

이번에 실시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우건설 부사장님으로 계시는 송효성 선배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날 대우건설 기술연구소를 견학한 후 멋진 저녁식사와 함께 평소에는 듣지 못할 상당히 값진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가끔 메일을 주고 받으며 상담 정도 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만남을 가지고 난 후에는 생각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학기의 공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조만간 함께 갔던 친구들과 다시 한 번 멘토님을 찾아뵙려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멘토님을 만났을 때는 약간 어색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분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며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금방 마음을 놓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로에 관하여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 것과 바로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학을 가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기술고시나,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는 어떠한 노력과 희생이 따르는지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께서 그동안 쌓아 오셨던 경험이 워낙 풍부하셔서, 진로에 관한 여러 선택들이 가질 수 있는 장단점들을 골고루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학업 외의 학교생활에 관해서도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멘토님께서 여자 선배님이라 그런지 더욱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안혜민

학부 10학번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2011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Q 졸업식후의 소감을 어떻게하나요?

임지웅 졸업 후 뿐만 아니라 박사논문 최종심사가 끝나고 졸업식까지 두 달 가량 계속 졸업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졸업 심사가 끝난 후에는 후련한 마음만 들다가, 99년부터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에서 (중간에 휴학한 기간과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진학까지 약간 남는 기간을 다 포함하면 만으로 12년이죠) 이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섭섭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졸업할 때가 되니 '내가 참 좋은 환경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공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니며 직·간접적으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좋은 곳에 열심히 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명보 졸업식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합격 발표를 확인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합격의 기쁨과 동시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무사히 졸업을 하고 전기공학부 동문회의 일원이 된다니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신다영 힘들었던 전기공학부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과 조금 더 대학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원섭섭했습니다. 졸업장과 학위라는 것을 얻었지만 자유롭고 행복했던 대학생활을 마무리 짓는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전기공학부 자체 졸업식



학부 05학번 심명보



전기공학부 자체 졸업식

임지웅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전기공학부 자체 졸업식은 단대별로 하는 여름 졸업식보다도 훨씬 가족적이고 좋은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식 참석자 전원이 교수님들과 인사하고 축하받는 점이 좋았습니다. 301동 근처는 졸업식인데도 심하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도 좋았고요. 교수님들과 학부 선생님들께서 졸업생들을 위해 많이 애쓰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체 졸업식과 전체 졸업식의 시간 간격이 길지가 않아서 다른 과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만나기 힘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체 졸업식이 끝나고 바로 학교 밖으로 나가 가족들과 식사하고 다시 학교로 들어오니 전체 졸업식 시작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졸업식 시간을 전체 졸업식 이후로 잠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명보 이번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 먼저 졸업한 친구들을 축하해 주려 전체 졸업식에 갔었는데,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몇 수상자들과 박사 졸업생들 외에는 뒤에서 뿔뿔히 서있다가 끝나버리니 '내가 졸업할 때는 굳이 갈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체 졸업식에서 졸업생 하나하나가 단상에 올라가 학부장님께 졸업장을 받게 되니 전기공학부 졸업생으로서 소속감도 느끼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신다영 체육관에서 한 전체 졸업식보다 학부 졸업식이 더 기억에 납니다. 학부장님께서 단상 위에서 졸업장을 한 명씩 모든 졸업생들에게 주시니 졸업하는 것이 실감나고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 시행된 학부 졸업식인데 학부 사무실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인 졸업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활 중에 거의 대부분을 지낸 301동에서 졸업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체 졸업식 덕분에 졸업식에 좋은 추억거리가 생겼습니다.

Q 학부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교수님이 궁금합니다.

임지웅 박남규 교수님의 양자역학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박남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질문과 책에 안 나오는 문제들을 시험에 정말 열심히 내주셨었는데, 시험문제를 출제하시는 동안 고민을 너무 깊게 하셨는지 오픈북이던 시험이 시험 당일이었던 토요일 새벽 3시에 게시판 공지를 통하여 클로즈드북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1번 문제는 "자신이 풀 줄 아는 양자역학 문제를 출제하고 해답을 제시하여라 (어려울수록 배점이 높음)" 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로 '양자역학으로 4핵심을 지으시오'라는 문제를 적고 클로즈드북으로 시험을 바꾸신 교수님에 대한 섭섭함을 담아서 적었더니 점수를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그 학기 다른 양자역학 시험에서는 재미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우리의 직관과 상상력, 창의력을 키워 주겠다는 일념 하에 뇌를 혹사시켜 주신 수업이라 기억에 많이 납니다. 저는 다른 강좌를 들었지만 2학년 때 회로이론 수업 중 설승기 교수님의 '팀 플레이 시험'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요즘에도 팀플레이로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심명보 작년 1학기 때 들었던 김재하 교수님의 '디지털 집적회로 설계'입니다. 복잡하고 첫 학기에 혼자 들었던 수업인데, 교수님의 유창한 영어실력에 감탄했고 꽤나 어려웠던 숙제 때문에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3단계로 진행된 'SRAM설계' 프로젝트 때문에 밤을 샜던 기억도 있고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매우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수업시간 외에 찾아가서 질문을 드려도 친절히 잘 도와주셔서 무사히 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공부한 만큼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던 수업입니다.

신다영 이장규 교수님의 공학기술과 사회라는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전공 과목인데 전공지식을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공학을 하는 마인드를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공학을 하는 이유, 엔지니어는 무엇을 하는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학 기술과 사회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수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그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느껴보게 하셨습니다. 공학을 전공하고 평생 공학을 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정말 잘 이끌어주시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이 수업을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후배들에게 학부 때 이것만은 꼭 해보았으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임지웅 첫 번째,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한 이후에는 생각보다 자유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부 때 많이 다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공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만들고 사회의 다른 면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분명히 나중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명보 여행을 많이 해보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학부생 때는 방학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있죠. 계절학기 수업을 들더라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은 다들 있을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나니 이 정도로 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취미활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은 사회로 나간 이후에도 주말을 이용해 틈틈이 할 수 있지만 며칠간의 여행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 다양한 사회를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다영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많이한 편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학부 때 사회봉사 과목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등학교 때 하는 것 같은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좋은 환경에 있는지도 느껴보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는 경험은 매우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복싱부 소속으로, 제가 참가했던 대회
정식명칭은 '서울특별시 아마추어 복싱 신인선수권대회'
입니다. 이 신인대회에 참가해야겠다고 제대로 결심한
것은 작년 12월쯤이었습니다. 사실 항상 스파링을 하면 맞기만
하고 선배님들께서 살살 해주시는데도 제대로 못하니,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신인전 나갔다가 바로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은 두 달 열심히 하면 선배님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등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부족한 것은 체력이었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통
아침과 오후 운동,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에 웨이트까지 해야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침 운동을 하지 못해 항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선배님들께서 함께 달려 주시는 등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더욱 힘을
내어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체급에 맞추기 위해 처음에는 조금 덜 먹고 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침식사만 제대로 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는 겨란 3개, 바나나 2개씩 먹으며
체급을 맞췄습니다. 체력 다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점은 기술이었는데, 기술
연습은 동아리 선배님들과 감독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 몇 가지를 골라서 집중 연습을 했지만
결국 시합 날에는 거의 하나도 만나오더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연습할 때 100
만콤 연습하면 스파링할 때 10만콤 나오고 시합 때는 1만콤 나오는 것 같아요. 시합 때 10
만콤이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담부터는 1000만콤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연습, 체력관리, 몸무게 관리를 정신없이 하다보니 어느새 대회 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복싱하는 것을 반대하셔서 부모님께서는 대회출전에 관해서는 일절
비밀로 했습니다만, 결국 학교에 현수막을 걸어 놓았던 것이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서
알아차리시고 말았습니다.

시합일, 첫째 날에는 부전승으로 올라갔고, 둘째 날은 상대방이 기권을 했습니다. 편하긴 해도 두
번 정도는 이기고 금메달을 땀으면 더 보람이 있었을 텐데,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그냥
받아들이고 셋째 날 시합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복서들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보통 키가 크고 팔이 긴 사람들은 아웃복싱을 하고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인파이팅을 합니다. 전
키가 큰 편이라 아웃복싱을 많이 하는데, 아웃복서들은 오른손(주무기)으로 때리고 도망가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런데 전 오른손으로 때리는 게 잘 되지 않아 많이 고전했습니다. 원래 전략은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 손으로 왼쪽 스트레이트 하던지 왼손 흑으로 돌아 나오려 했는데, 실
제론 오른손을 찌고 나서 그냥 난타전이 되어 너무 힘들어 제가 붙잡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자주 붙잡아서 파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상대방과 가까이
붙을 때 많이 맞아서 진 경기인 줄만 알았는데, 상대방이 힘든 모습을 보일
때 많이 때린 것이 주효했는지 마지막에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아쉬움도 많
은 경기였지만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대회를
나갈 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정교하게 연습해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
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신 복싱부 선배님
들 및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더 멋진 복싱부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싱부 화이팅!

이정호

학부 09학번 이정호
아마추어 복싱대회 우승



고재경

비상하는 흥, 중국(中國)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앉아 한
학기의 교환학생 생활을 돌아보며
저는 다시 한 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이라는 '세계
에서 가장 큰 용'이 다시 한 번 큰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
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과 지식
을 중국 중심에 위치한 북경대학
교가 제공해 주었습니다. 광활한 중
국대륙 곳곳에서 온 수재들과, 또
중국을 배우러 찾아온 세계 방방
곡곡의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였던
경험은 저의 대학 생활의 가장 큰
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교류를 통한 배움

제가 북경대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활동은 교류였습니다. 먼저
전자공학과와 Silicon Photonics
and Microsystems 연구실에서의
인턴 생활이 기억납니다. 조지아텍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 오신
Zhiping Zhou 교수님을 비롯한 석·
박사 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셨고 주간 회의의 공식 언어가
영어였기에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습
니다. 연구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저는 광전자 분야의 전공 지식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억나는
활동은 '투자 은행'이라는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중국 경제 토론회를
결성한 일이었습니다. 그 수업은 미
국 'Wall Street'에서 활동하셨던 전
컬럼비아 대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여, 경제·경영에 대해 관
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뜨거운 인기가
있던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광화
관리학원(서울대의 경영대에 해당)
친구들에게 토론회를 제안하였고
약 8명의 학생들과 수업이 끝나고
다양한 주제를 놓고 중국 경제에
대해 영어로 토론을 하며 의견을

세계를 무대로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더 커질 것이
며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더욱
발전된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가 중
국, 일본의 학생들을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배우며
큰 무대에서 교류를 통해 상생할
줄 아는 지혜를 길렀으면 좋겠습
니다. 우리 서울 공대, 특히 전기공
학부 친구들은 앞으로 한국이 단군
이래 최고의 국가로 성장하고 발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
래를 향해 항상 안으로는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밖으로는 세
계인들과 당당히 교류하는 학생이
되길 기원합니다. 같이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
환
학
생
수
기

북
경

대
학

교



공학수학2 도우미

학부 04학번 유승일

저는 이번 2011년도 1학기 공학수학2 전공 도우미로 활동한 전기공학부 04학번 유승일입니다. 금년 2월에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우수한 전기공학부 학생들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많이 노력하였는데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김용권 교수님과의 상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공도우미라는 것이 항상 주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양한 전기공학부의 학우들과 특정 과목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볼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또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말 명예로운 자리임에 틀림없었기에 지난 한 학기 동안 매우 즐거웠습니다.

도우미 활동을 마치는 시점에서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으나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공도우미 활동을 통해 전기공학부 내의 편한 선배 중 한 명으로, 학생 여러분들과 조금 더 편하게 전공과목 외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사실 학부가 너무 크다보니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털어놓을 만한 사람들을 사귀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전공도우미들과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우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고, 특히 학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우미 활동을 뒤에서 열심히 지원해주셨던 학부 사무실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기공학부의 정말 좋은 제도 중 하나인 전공도우미 제도가 자리를 잘 잡아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전기공학부 만세!

유승일.

전공도우미

저를 전공도우미로 뽑아주신 교수님과 도우미 관련 각종 행정 일을 도와주신 조교님, 그리고 전기공학부 행정실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학기 동안 전기공학부를 대표하는 전공도우미로서 활동을 한 저 자신에게 부딪힘을 느낍니다. 전기공학부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졸업을 하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전자회로1의 전공도우미로서 한 학기 지내본 소감은, 많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과목을 수강해 본 학생으로서 전자회로1을 공부할 때 느꼈던 힘든 점에 관한 좋은 요령과 팁들을 최대한 수강생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고습을 하듯이 편하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 좀 더 많은 수강생들이 편하게 이 도우미강좌에 다가와 주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로 오시던 분이 계속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알찬 지식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꼭 홍보가 잘 되어서 인기 많은 도우미강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효겸.



전자회로1 도우미

학부 08학번 김효겸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과목의 도우미를 맡은 09학번 김선규입니다. 작년 가을 즈음에 전공학습도우미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학 전부터 프로그래밍을 한 경험이 있으며, 입학 후에도 프로그래밍 방법론 과목을 수강하는 등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C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전공 도우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공도우미 활동을 수행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에 대해 풀어서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과목의 특성상 C코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특히 다른 학생들의 코드에서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설명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알고 있던 개념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전공도우미가 한 주에 한 번씩 강의식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알던 내용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생들의 참가가 생각 이상으로 저조했던 점입니다. 특히 강의식 수업의 경우는 참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전공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처음의 기대보다 학생들의 질문이나 강의 참여가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공도우미 제도를 통해 전공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규.

1학기에 회로이론1 전공학습도우미를 맡았던 윤수빈이라고 합니다. 수업 들으신 분들, 전공진입하고 난 후의 첫 과목이기도 하고 공부할 양도 많은 회로이론을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수강생 수준이 높아져서인지 시험도 프로젝트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습도우미를 진행하면서 전공 공부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회로이론을 공부할 때 궁금해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에 재밌기도 했고,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창의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부를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들었고요. 저도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며 저도 한층 성장한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전공학습도우미분들께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물어봐 주세요. 교수님들께 여쭙보기 좀 엉뚱하지 않나 하는 질문도 물론 좋습니다. 회로이론 과목은 어렵고 생소한 물리적인 이론보다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이를 회로에 적용하여 응용된 회로를 분석하고 각종 물리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운 문제부터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우미분들도 대부분 학생이시기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토론해보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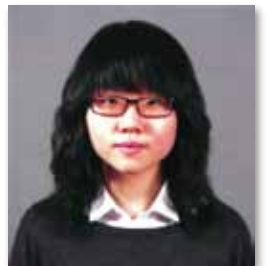
전공도우미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조남익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강생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수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도우미

학부 09학번 김선규



회로이론1 도우미

학부 09학번 윤수빈

우수 논문상

먼저 석사과정 동안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김용권 교수님, 생활부터 연구까지 많은 조언을 해준 연구실 식구들, 졸업하신 후에도 연구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부족한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전공은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이며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초소형 전기기계를 만들고 측정 및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는 비싸서 학부 때 직접 다루어 보지 못했는데, 대학원에 와서 공정 장비를 배우고 이를 이용하여 MEMS 소자를 제작하고 측정할 수 있어서 MEMS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은 학부와 다르게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이론을 찾으며 문제 해결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하고 실험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과 연구실 형들 덕분에 무사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 반복적인 실험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상했던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의 그 감동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2년 전 연구실에 들어와 MEMS란 학문을 처음 접했을 때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는 기대와 한편으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석사과정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걱정은 사라지고 배움의 만족과 연구실 생활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즐겁고 유익했던 석사생활이 끝남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대학원 2년 동안의 생활은 사회에 나가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석사과정 동안 도움과 가르침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010년 2학기 홍보도우미를 맡았던 노준하입니다. 우선 부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게 봉사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홍보도우미로서 맡았던 주된 업무는 전기공학부 소식지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홍보도우미에 지원할 때는 졸업하기 전에 공부와 연애 말고 다른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쉽게 해 볼 수 없는 디자인 작업이라는 점이 흥미로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당시에도 학기 중에 작업을 하는 고충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막상 작업을 시작하니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식을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마음을 자주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 행정실 선생님들께서 계속 지원을 주시고 처음 몇 장을 만드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소식지 제작 작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작업을 필요로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홍보도우미들과 함께 분담했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다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학부 행사를 잘 알 수 있었고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식지가 완성되고 다른 학생들이 소식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홍보도우미로 지원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우미는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인터뷰, 퇴고 등의 소식지 제작과 관련된 다른 작업들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수 있으면서도 학부의 다양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이면 공부하느라 바쁘고 학교에 대한 불만도 쌓이기 마련이지만, 꼭 홍보도우미가 아니더라도 학교 행사를 준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보는 것은 추천할 만한 경험이며 학교와 학생 사이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통해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런 활동과 수상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부 09 노준하

저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기공학부 신입생 도우미로 활동하였습니다. 제가 2학년이 되어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할 때 어떤 과목들을 신청해야 좋을지,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많이 헤맸던 기억 때문에 10학번 후배들이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할 때에 도움을 주고 싶어 신입생 도우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신청 시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도 학기 중에 10학번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신입생 도우미는 취지는 좋았으나 작년부터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2학기부터 신입생 도우미라는 제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신입생들에게는 도우미가 더 절실한 입학한 직후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공학부 커리큘럼은 2학년 2학기 때 실험과목이 3개나 있어서 많이 힘든데 이에 대한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교수님께 여쭙 보기도 하였습니다. 09학번에 신입생 도우미가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있는데 저와 다른 한 명의 도우미만 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8명의 신입생 도우미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했고 도우미로서 해야 할 일을 했는데 8명이 전부 봉사상을 받지 못하고 저와 다른 한 학생만 받게 되어서 다른 도우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전기공학부에는 훌륭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제 할 일을 잘 해 나가는 것이 전기공학부를 위해서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개선해야 할 것들이 보일 때는 이러한 점들을 방관하지 않고 건의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 09 손정환

저는 2010년 2학기부터 신입생 도우미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1년 현재 신입생 도우미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입생 도우미 활동이란 전기공학부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매년 약 9명 정도의 멘토(학부 2학년생)를 선발해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강신청 지도, 리포트 작성 지도, 학업 지도,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이 있습니다. 사실 도우미 활동 초기에는 신입생들을 자주 만나지도, 열심히 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후배들과 밥이나 한 번 먹고 사소한 얘기만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활동 중간에 교수님께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가 신입생이던 시절을 진지하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으며 그 때마다 전기공학부 선배의 조언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신입생 도우미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신입생 시절의 나 자신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도우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먼저 마음을 열자 신입생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2010년 도우미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사상을 수상한 것도 또 다시 채찍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도우미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기공학부 신입생들 파이팅!

학부 09 김희우

봉사상

2011 FALL

COVER

STORY

기자단

후기



학부 양학번
윤성현



각각으로 복학을 하고 나서 홍보도우미로써 전기과 교지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들과 여러 선배들에게 연락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뒤에는 사람들을 데하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 수 있었고, 여러 교수님들께 일대일로 찾아서 여러 좋은 말씨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알려주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교지를 만드는 것에 있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교지를 만들면서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부족했지만, 사실 혼자서 이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학부사무실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학부 양학번
정동주

우리 뉴스레터가 'EE LIFE' 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인 1호 뉴스레터 제작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매 학기 뉴스레터의 내용이 좋아지고 그만큼 학부에서 계속 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레터 제작에 참여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기공학부 동문들께서 학부 활동에 관심 전 개인적으로는 여러 교수님과 선배님들을 뵈고 인터뷰도 부탁드리는데 라점에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고, 평소에 잘 해보지 못했던 교정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것 외에 많은 활동을 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졸업하기 전 수업을 전기공학부 뉴스레터에 기자활동 후기를 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뉴스레터를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뉴스레터가 몇 명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후기 등을 요청 드리는 것은 뉴스레터에 꼭 그 내용을 담고 싶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EE LIFE'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동문들의 소식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을 도와주신 동문 여러분들, 교수님, 행정실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디자인 작업의 대부분을 맡아준 성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